

‘感歎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小考

— 한문과 교육과정과 현행교과서를 중심으로 —

정 순 영*

<目 次>

- | | |
|------------------------|----------------------|
| I. 서론 | IV. 교과서에서의 ‘感歎詞’ 서술에 |
| II. ‘感歎詞’의 문법적 특징 | 대한 검토 |
| III. ‘感歎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 | V. 결론 |
| 범주 고찰 |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기술한 품사의 한 갈래인 ‘感歎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연구다.

2007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품사’를 상정한 이래로 ‘感歎詞’는 ‘介詞’, ‘接續詞’, ‘語助詞’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감탄사’들이 구어에서 두드러진 어휘로 문언문인 한문에서의 표현은 상당히 한정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또한 통사적으로 문장구성성분과 직접적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여 문언문법에서 관심이 소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感歎詞는 여타의 虛詞와는 달리 話用論이나 談話 분석 상에서 다용되어 나타나며, 문장 밖에 단독으로 쓰여 문장 내의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정의를 내리면, ‘感歎詞’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같은 형태라도 다른 문법적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의미는 선후행문장의 전체적 언어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기쁨, 슬픔, 놀람,

* 충남대학교 강사 / 7743jsy@hanmail.net

분노, 한탄, 찬미 등의 感情感歎詞와 應答詞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여타의 허사와는 달리 문장 밖에 독립적으로 쓰여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허사 중 하나의 품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감탄사, 독립어, 통사, 화용론, 언어환경

I. 서론

새로 개정된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感歎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탄사(感歎詞)는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¹⁾

이와 같은 ‘감탄사’에 대한 교육과정에서의 정의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이래로 2009개정, 2015개정까지 변화가 없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한 ‘감탄사’의 서술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선,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라는 표현은 ‘감탄사’가 통사적 측면에서 하나의 문장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성성분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장 밖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한 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독립어’라는 성분이 다른 문장성분과 구별성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감탄사’가 통사적으로 문장과 관련이 없어 문언 문법연구 위주의 한문문법에서 관심이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에서 ‘독립어’라는 문장성분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감탄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독립적으로 쓰인 단어이므로 선후행 문장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p.28.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표현은 ‘감탄사가 話用論(Pragmatics)²⁾ 측면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것과 감탄사에 대한 문법의미범주를 4가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느낌’이나 ‘놀람’은 감정표현의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부름’이나 ‘응답’은 감정표현의 범주로 보기는 힘들어 같은 범주로 보기에는 기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감탄사’라는 품사가 지닌 기능과 의미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감탄사를 ‘품사’의 하나로 상정한 이래로 ‘感歎詞는 ‘介詞’, ‘接續詞’, ‘語助詞’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허사에 비하여 개별 허사로서의 ‘감탄사’에 대한 연구가 문법서적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 외에는 단독 연구논문이 전무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감탄사’에 대하여 우리 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고 제가들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를 살펴 학교 문법적 측면에서 정의와 문법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교과서에서 감탄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2) 순수 언어학이 언어의 구조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라면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곧 언어 구조와 사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언제나 일 대 일로 대응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운용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형식이라도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고, 한 가지 의미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박영순 지음, 『국어문법 교육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5, pp.241-242. 참조), 상황이나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언어사용면에 대한 연구.(이석주·이주행·박경현·민현식·윤희원·고창수·이은희·오현아 지음, 『언어학과 문법교육』, 도서출판 역락, 2007, p.132. 참조)

II. ‘感歎詞’의 문법적 특징

우리 국어문법에서는 ‘감탄사’를 문장성분 중에서 독립어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감탄사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독립언이라 한다.³⁾

라고 정의하면서 ‘감탄사’를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통사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며, 그 예로 ‘허허, 예끼, 아이고, 후유, 예구머니, 아빨사’ 등과 같은 감정감탄사와 ‘아서라, 자, 여보, 여보세요, 네, 그래’ 등과 같이 상대방을 의식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감탄사, ‘뭘, 말이지, 있지, 어, 아, 에헴’ 등과 같은 입버릇이나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어에서의 다양한 감탄사의 종류를 보면 표음 문자적 특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감탄사의 의미가 담화상에서 상황에 의해 의미가 풀이되는 것으로 통사론보다는 話用論 측면이나 담화분석상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는 품사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최호철은 감정감탄사 ‘아’의 의미는 ‘놀람, 초조, 기쁨, 슬픔, 후회, 각성’ 등의 6가지이지만 문맥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려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⁴⁾ 다음으로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감탄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감탄사(感歎詞)는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

3)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2005, p.171.

4) 최호철, 「현대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한국어와 모국어 정신』, 국학자료원, 2000.(신지연,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2001, p.249 재인용)

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⁵⁾

교육과정에서 감탄사의 정의는 국어와 거의 같게 서술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감탄사는 虛詞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품사로 서술하고 있으며, 문장성분에 대한 서술부분에서는 ‘독립어’라는 문장성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탄사에 대한 2007개정교육과정해설서에서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嗚呼! 哀哉! [아! 슬프도다!]
- ② 惡! 是何言也? [아! 이 무슨 말이고?]
- ③ 諾! 吾將問之. [예!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⁶⁾

위 예문의 화자와 청자의 담화상에서 쓰이고 있는 문장들이며 감탄사는 문장안의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는 통사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은 감탄사 뒤에 오는 ‘哀’를 통해 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탄사 嗚呼는 선행문을 보지 않아도 후행문의 ‘哀’를 통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국어문법에 있어서 화자의 감정표출 감탄사로 볼 수 있다. ②의 ‘是何言也’는 앞서 공손추의 ‘然則夫子 既聖矣乎’라는 말을 이어서, 맹자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맹자는 공자도 성인을 자처하지 않았거늘 공자를 배우는 자신이 어찌 성인을 자처할 수 있겠느냐며 공손추의 논평을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다. 여기서 ‘惡’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국어에서의 의지감탄사로 ‘惡’의 의미는 선행행문장을 통해서야 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선행문을 신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③의 감탄사 ‘諾’은 ‘허락한다’는 의미의 실사가 아니라 대답의 ‘예’로

5)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p.28.

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한문』, p.56.

볼 수 있다. ‘諾’이 단독으로 쓰여 주어가 생략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으나 선후행문장을 통해 ‘諾’이 응답사로 상대방을 의식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표시하는 국어에서의 의지감탄사로 볼 수 있다. 이 예문도 선행문을 제시해야 정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 국어와 한문에서의 ‘감탄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국어나 한문 모두 감탄사는 문장내의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하여 쓰이고 있으며, 담화나 화용론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음문자인 우리 국어의 감탄사는 성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말버릇’이나 ‘말더듬’ 등 표의문자체계인 한문에 비하여 종류가 상당히 많다. 한문에서 ‘감탄사’는 감정이나 응답의 소리를 표의문자인 한자로 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같은 한자로 표현하더라도 정감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의 언어환경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⁷⁾ 한문에서 감탄사는 허사의 하위범주로 보고 있는데, 허사의 특징은 자립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다른 성분에 종속되어서만 의미를 갖는 성분으로 하위분류로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감탄사’만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⁸⁾

이로보아 ‘감탄사’의 문법적 특징은, 첫째 다른 허사와는 달리 화용상이나 담화상에 많이 쓰이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다른 허사는 하나의 문장내에서 실사와 관계하여 문장내의 성분요소로 쓰이는 등의 문법기능을 하는데 반하여 ‘감탄사’는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문장과 같이 하나의 발화를 이루어 독립성분으로 쓰이며, 그 의미는 선후행의 문장을

7)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5, p.109, “嘆詞是表示感嘆和應答聲音的詞, 又叫感歎詞。他是傳達某種感情的聲音, 人們用文字把它記錄下來的。… 嘆詞有同一聲音表示不同感情的, 也有同一感情而用不同的詞來表示的, 因此它所表示的感情, 要從全句的意義來看。”

8) 정순영, 「문법성분 개념의 성립과 그 분류에 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참조.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감탄사’가 의미실현 면에서 기타 허사와 같이 자립적으로 의미를 실현하지는 못하나 여타의 허사가 실사에 의존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데 반하여 감탄사는 실사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탄사’의 이러한 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학자에 따라서는 ‘감탄사’를 허사나 실사 이외의 다른 범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III. ‘感歎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 범주 고찰⁹⁾

感歎詞¹⁰⁾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소리로 중국에서는 歎詞(嘆詞)라고도 한다. 感歎詞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러나 감탄사 자체 단어로는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지 알지 못하고 선후행하는 전체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감탄사의 의미가 결정된다.¹¹⁾ 感歎詞에 대하여 馬建忠은

“무릇 허자로서 인간 마음속의 평정되지 않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을 嘆字라 한다. 문장가운데서 슬픔과 즐거움, 불평의 애석함을 만나게 되므로 虛字를 사

9) 본 장은 정순영의 『『三國遺事』의 虛詞研究』(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를 참조하였음.

10) 陳承澤은 『國文法草創』(1982)에서 ‘感字’라 하고 있으며, 楊伯峻何樂士의 『古漢語語法及其發展』(1992)과 何樂士 等著의 『古代漢語虛詞通釋』(1985)과 安載澈의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問題」(2001)에서는 ‘感歎詞’의 용어를 쓰고 있다. 黃六平의 『漢語文言語法綱要』에서는 ‘歎詞’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번역본 『漢文文法綱要』(洪淳孝韓學重 譯, 미리내, 1994)에서는 ‘感歎詞’의 용어를 쓰고 있으며, 易孟醇은 『先秦語法』(1989)에서 ‘感情詞’의 용어를 쓰고 있다.

11) 殷國光, 『呂氏春秋詞類研究』, 華夏出版社, 1997, p.383, “嘆詞自身沒有確切的詞滙意義 在話語中總是單獨成讀 獨立于句子結構之外”;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p.899, “對嘆詞的分析理解必須緊密結合上下文 嘆詞總的來看 有驚而嘆或感而嘆 但‘驚’究竟是驚喜或驚怒 … ‘嘆’究竟是贊嘆或悲嘆則不能脫離具體的語言環境”

용하여 그 소리를 묘사한다. …모두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마음속에서 나오는 슬픔과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嘆字라고 말한다.”¹²⁾

馬建忠은 ‘嘆字’라 명칭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意義가 없이 단지 문장 속에서喜怒哀樂 등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라 보았으며, 소리의 種類에 따라 분류하여 ‘於’ ‘噫’ ‘嘻’ ‘呼’ ‘已’ ‘夥頤’ ‘嗟茲’ ‘于嗟’ ‘嘯’ ‘嚇’ ‘咄’의 歎美, 痛傷, 悲恨, 驚愕, 戲弄, 怒叱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唯’, ‘然’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 感歎詞는 이미 感情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하여 구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장 앞에 오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¹³⁾ 이는 감탄사가 문장에서 독립성분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漢文의 感歎詞는 擬聲詞로 고대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黎錦熙는 『新著國語文法』에서

“嘆詞는 말할 때 일종의 감정을 나타내는 성음이다. 흔히 독립적으로 쓰임으로 반드시 단어와 어구에 결합될 필요는 없고 소리의 전달을 위주로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¹⁴⁾

黎錦熙는 嘆詞라 명칭하고 문장 밖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驚訝 혹은 贊歎, 傷感 혹은 痛惜, 歎笑 혹은 譏嘲, 憤怒 혹은 鄙斥, 呼問 혹은 應答으로 나누고 있다.¹⁵⁾ 楊伯峻은 『古今漢語詞類通解』에서

12) 馬建忠, 『馬氏文通』 界說十, 앞의 책, p.23, “凡虛字以鳴人心中不平之聲者曰嘆字 文中遇有哀樂不平之感喟 因用虛字以肖其聲 … 皆無義理 惟以心中所發哀樂之聲 故曰嘆字”

13) 馬建忠, 앞의 책, pp.381-384 참조.

14)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中華民國20年, p.12, “是用來表示說話時一種表情的聲音 常獨立 不必附屬於詞和語句 以傳聲爲主 本身也沒有甚麼意思”

15) 黎錦熙, 앞의 책, p.337 참조.

“嘆詞는 단지 음성을 표시하는 글자로 글자의 뜻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 소리에 인해서 글자를 만들어 글자에 정형이 없다. 예를 들면 ‘烏呼’는嘆聲인데 ‘於乎’로 쓸 수 있고 또 ‘嗚呼’로, 또 ‘於戲’로 쓸 수 있다. … 인류의 감정은 무한한 변화가 있으나 감정을 표현하는 성음은 반대로 적다. 그래서 ‘嗚呼’ 두 개의 글자로 비애를 나타내기도 하고 찬미를 표현하기도 하여 글자는 같은데 정감은 변해 사정에 따라 정감을 보인다. … 탄사는 단지 소리를 표현한 글자로 뜻이 없고 문장과와의 관계는 독립적이어서 문장의 어구와 문법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위치는 매우 자유롭다.”¹⁶⁾

楊伯峻의 감탄사에 대한 설명은 보다 자세한데, 嘆詞라 명칭하고 의미기능은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글자로 표기되기도 하고 같은 글자라도 언어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실현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감탄사가 성음을 문자로 표현함에 있어 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표기 할 수 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성음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 한자의 표의문자적 특성을 볼 수 있다. 寥振佑는 『古代漢語特殊語法』에서,

“歎詞는 문장밖에 독립하여 감탄 혹은 응답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없고 결구관계를 표시할 수 없고 또한 문장의 어떠한 어기도 나타낼 수 없다.”¹⁷⁾

라고 하였다. 그는 歎詞라 명칭하고 감탄과 응답의 구분과 문장안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 관계가 없으며 문법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탄사를 감탄사와 응답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感歎詞는 驚訝, 贊許, 傷痛, 怒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⁸⁾ 문장의 어떠한 語氣도 나

16) 楊伯峻 著, 田樹生 整理, 『古今漢語詞類 通解』, 北京出版社, 1998, p.403 참조.

17) 寥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1979, p.222, “歎詞是獨立于句子之外表示感歎或應答的詞 一般不能作句子成分 不表示結構關係 也不表示句子的任何語氣”

18) 寥振佑, 앞의 책, p.222, “感歎詞是人們表示驚訝贊許傷痛怒斥等強烈感情的一

타낼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語氣助詞가 다른 성분이나 문장 말에 의존하여 쓰여 어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반해,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여 단지 성음을 나타내므로 자체는 어떠한 어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感歎詞는 喜·怒·哀·憂·樂·惡 등의 감정색채를 나타내는 품사지만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며, 문장에서 통사상 어떠한 관련을 맺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 다른 선후행 문장표현의 감정효과를 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 기능은 선후행 문장전체와의 언어환경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태가 동일한 感歎詞일지라도 성조에 따라 나타내는 감정이 다르며, 감탄사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언어환경에 따라 같은 형태라도 그 의미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며, 모든 감탄사는 어떤 담화 상황에서 모종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모종의 성음을 모방한 것이므로,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裴學海는 『古書虛字集釋』에서,

“於是 탄사이다. 짧게 말하면 於요. 길게 말하면, 於乎이다. 於乎는 烏乎, 嗚呼, 於戲로 쓰기도 하는데, 고대에는 모두 통용된다.”¹⁹⁾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감탄사는 사실 감정을 나타내는 聲音이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가 없고 또한 위치를 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에 쓰이며, 문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성분을 이룰 수 있다. 독립하여 쓰이기 때문에 문장의 어기도 나타내지 않는 점에서 실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감탄사는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가 없으며, 문법적 의미는 전체적인 언어환경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허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탄사의 기능으로 인하여, 감탄사에 대한 허사와 실사의

種摹寫的聲音”

19) 裴學海, 『古書虛字集釋』三卷, 臺北:鄉梓出版社, 中華民國66年, p.255, “於歎詞也 按短言之曰於長言之曰於乎 於乎或作烏呼或作嗚呼或作於戲 古皆通用”

귀속에 있어서 허사와 실사의 이외의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陳望道는 『文法簡論』(1977)에서 감탄사를 ‘感詞’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虛詞와 實詞이외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⁰⁾ 『漢語文法論』²¹⁾에서는 擬聲詞라 명칭하기도 하고 있다. 다음은 제가들의 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楊伯峻 (1998) ²²⁾	寥振佑 (1979) ²³⁾	周秉鈞 (1978) ²⁴⁾	劉誠·王大年 (1985) ²⁵⁾	易孟醇 (1989) ²⁶⁾
<嘆詞> 感歎 悲痛 憤怒 驚疑 贊頌 命令或呼喚 喜悅或對笑 其他	<歎詞> -感歎詞 놀라움 찬탄 애통 격분 -應答詞 부름 응답	<嘆詞> 歎息 贊美 驚疑 憤怒 責斥 命令或 呼喚	<嘆詞> -感歎詞 感情 感嘆 讚美 悲傷 怒斥 驚疑 -應答詞 命令 呼喚 應諾	<應對副詞> 唯, 諾, 然, 俞, 善, 唉, 否, 亡, 不 <感情詞> 歎息或哀傷 驚訝 讚美 憤怒
劉景農 (1994) ²⁷⁾	牛島德次 (1970) ²⁸⁾	黃六平 (1978) ²⁹⁾	楊伯峻 何樂士 ³⁰⁾	史存直 ³¹⁾
<歎詞> 驚異 感慨 怒斥 贊歎 輕蔑 <應答詞>	<擬聲詞> 嘆息 愛惜 懷疑 叱責 輕視..	<歎詞> -情緒 悲痛 讚歎 輕視 斥怒 驚歎 憤怒 -應答詞	<感歎詞> <呼應詞>	<感歎詞> 悲痛或感歎 驚訝 讚歎 呼喚或命令

20) 陳望道, 『文法簡論』, 上海教育出版社, 1997, p.65, “至于感詞它能穿插于句子之中 獨立時可以成句 但一般又不能做除穿插語之外的句子成分 着眼于第一点 可說它與實詞相同 着眼于第二点 可說它與虛詞相仿 所以 可將感詞放在實詞虛詞之外”

21) 牛島德次 著, 『漢語文法論』(中古編), 大修館書店, 1970, p.288.

22) 楊伯峻 著, 田樹生 整理, 『古今漢語詞類 通解』, 北京出版社, 1998, pp.282-283, pp.403-415 참조.

제가들의 분류에서 우선 용어를 살펴보면, 감탄사를 의성사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가 ‘감탄사’라는 명칭보다는 ‘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탄사’와 ‘응답사(호응사)’를 각각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학자도 있다. 또 ‘탄사’의 하위범주에 ‘감탄사’를 설정하고 있는데 ‘탄사’의 하위분류로 ‘감탄사’와 ‘응답사’로 분류하여 그 의미범주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응답사’는 ‘탄사’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따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기도 하며, 易孟醇과 같이 ‘부사’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부름’, ‘대답’의 응답사가 성질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감탄사’라 명칭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문법 의미와 ‘부름’과 ‘응답’을 동일한 의미범주로 보고 있다. 감정을 나타내는 感歎詞는 소리를 나타내는 標音性質로 시간·공간적 요인의 영향으로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정서를 나타낼 수 있고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형태일 수 있으며, 전체 문장의 뜻을 통해 정감의 다름에 의해 다양한 의미의 감정표출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嗚呼 汝病吾不知時 汝歿吾不知日[아! 네가 병중에 나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네가 죽음에 나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였구나] 「韓愈, 祭十二郎文」

② 且立石於其墓之門 以旌其所爲 嗚呼 亦盛矣哉[또 그 묘의 입구에 비석을

23) 廖振佑 編著, 이중환 옮김, 『한문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p.338; 廖振佑 編著,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p.222-225.

24)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p.405.

25)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5. p.109.

26)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p.361, p.443.

27)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8, pp.107-110.

28) 牛島德次 著, 『漢語文法論』(中古編), 大修館書店, 1970, p.288.

2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華正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78년, pp.205-207.

3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pp.894-900.

31) 史存直, 『文言語法』, 中和書局, 2005, pp.207-208.

세워서 그들이 한 일을 맑혔다. 아! 장하구나] 「張溥, 五人墓碑記」

①의 ‘嗚呼’는 悲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같은 한자라도 ②의 ‘嗚呼’는 讚美를 나타내고 있다.³²⁾ 그러나 應答詞는 단지 대답하는 성음을 나타낸 것으로 감정표출감탄사가 정감을 표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感歎詞의 경우는 談話체계에 있어서 文章外的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時間的 空間的 분위기나 話者나 聽者의 기분에 따라 같은 소리라도 다른 감정을 표시할 수 있고, 음성의 고저나 성조 등에 의하여 전달되므로 같은 형태라도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應答詞는 감정표출의 感歎詞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감탄사의 하위범주를 동일한 기준으로 문법의미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감탄사’를 하위분류하여 감정감탄사와 응답사로 나누고자 한다. 왜냐하면 ‘唯’와 ‘諾’, ‘然’ 등은 단지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감탄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과정해설서에서는 국어와 같이 ‘부름’을 감탄사의 하위범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예시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최소한 교육과정에서 의미범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는 따로 라도 예시문을 제시해 주어야 할 듯하다. 만약 ‘由, 誨女知之乎’에서 ‘由’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때의 ‘由’는 감탄사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감탄사로 볼 수 없다.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그 의미는 어디에 쓰이던지 실질적이고 동일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에서는 ‘여보게’, ‘야’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백화에서는 ‘喂! 你是江先生嗎?’에서 ‘喂’를 들 수 있다. 이 예문은 전후문맥상 ‘喂’가 ‘부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백화문법에서는 ‘부름’을 대부분 감탄사에 포함하고 있다.³³⁾ 위의 표에서도 ‘부름’과 ‘응답’을 ‘탄사’의 하위범주에

32)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p.406.

33) 劉月華 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 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8, p.206.

넣기도 하고 따로 ‘응답사’라는 품사를 설정하여 ‘부름’과 ‘응답’을 포함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언문인 한문에서는 그 용례가 많지 않고 다만 ‘先生曰 吁, 子來前’(韓愈 進學解), ‘從者曰: 嘻, 速駕’ (左傳·定八年)³⁴⁾을 대부분 예로 들어 ‘부름’을 설정하고 있는데 史存直, 劉誠·王大年 등 학자에 따라 ‘呼喚’ 또는 ‘命令’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희자전에서는 ‘從者曰: 嘻, 速駕’의 ‘嘻’에 대하여 말하길 ‘【註】 嘻, 懼聲.’³⁵⁾라 하여 두려움을 나타내는 성음으로 보기도 하며, 감탄사로 강렬한 감정을 나타낸다고도 한다.³⁶⁾ ‘先生曰 吁, 子來前’의 ‘吁’에 대하여 ‘탄식하는 말’로 풀이하기도 한다.³⁷⁾ 이와 같이 ‘부름’을 의미하는 예시가 많지 않으며 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부름’의 예시도 없으며,³⁸⁾ 黃六平의 應答詞에서는 ‘부름’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易孟醇도 應對副詞나 感情詞의 설명에서도 ‘부름’의 의미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劉景農은

‘현대한어속의 ‘喂’에 해당하는 부르는 단어는 문언문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탄사를 차용해서 표시한다.’³⁹⁾

라고 하였다. 劉景農은 탄사와 응답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만 응답

34) 史存直, 『文言語法』, 中華書局, 2005, p.208; 楊合鳴 編著·최금옥 편역, 『고금한어의 어법차이』, 한국학술정보[주], 2008, pp.209-210;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5, p.111; 許璧,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pp.361-362; 寥振佑 編著,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226.

35) <http://uny.kr/?q=%E5%98%BB>

36) 김원중 저, 『한문해석사전』, ㈜글향아리, 2013, p.1543.

37) 『고문진보 후집』, 황건 엮음,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을유문화사, 2007, p.526.

38) VI장의 내용 참고.

39)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8, p112, “至於呼喚的詞可禍現代語裏‘喂’相當的, 文言裏就沒有, 一般是借用嘆詞來表示”

사는 대답의 성음으로 보고 있으며, ‘부름’에 대한 그의 의견은 위와 같이 문언문에서의 ‘부름’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종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문법 차원에서 살펴보면, 의견이 분분한 ‘부름’의 의미는 설정하지 않고자 하며 제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응답사’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품사의 명칭을 ‘탄사’라 하고 하위분류로 ‘감탄사’와 ‘응답사’로 분류하여 의미범주를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이미 교육과정에서 품사의 명칭으로 ‘감탄사’라 명칭하고 있으며, 학교문법이나 일반언어학적 차원에서 ‘감탄사’라 명칭하는 것이 보다 이해가 좋을 듯하다. 이상으로 제가들의 견해를 살펴 ‘감탄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의미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감탄사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같은 형태라도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선행행문장의 전체적 언어환경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한탄, 찬미 등의 감정감탄사와 응답사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여타의 허사와는 달리 문장 밖에 독립적으로 쓰여 문장 내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허사 중 하나의 품사라 할 수 있다.

IV. 교과서에서의 ‘感歎詞’ 서술에 대한 검토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에 쓰인 ‘감탄사’를 살펴보면,⁴⁰⁾ 중학교의 경우는 단 2회가 쓰였는데 모두 ‘嗚呼’로 단문에서 보인다.

① 嗚呼라 人誰無過리오마는 過而能改면 善莫大焉이라.[아! 사람이 누군들

40) 전국한문교사모임, 중학교 漢文 통합교재

허물이 없겠는가만은, 잘못하고도 고칠 수 있다면 선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⁴¹⁾

② 嗚呼 哀哉[아! 슬프도다.]⁴²⁾

같은 형태인 ‘嗚呼’지만 ①은 한탄의 의미를, ②는 슬픔의 의미를 타나내고 있다. 특히 ②의 예문은 감탄문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는 중학교교과서의 경우 감탄문의 예문은 1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8회가 모두 산문에서 쓰였다. 응답사로는 3회가 쓰였는데 唯1회, 諾2회가 쓰였으며, 감정감탄사는 5회로 嗚呼2회, 唉1회, 嗟乎1회, 噫1회가 쓰였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① 曰: "天下에 無良馬라."하니 嗚呼라! 其眞不識馬耶아?["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한다. 아아! (그)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일까? (그) 참으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⁴³⁾

日月逝矣라 歲不我延이라 嗚呼老矣라 是誰之愆고[세월은 흘러간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아아! 늙었구나.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⁴⁴⁾

② 人有求爲山水한대 畫山不畫水라. 人怪詰之하니 七七擲筆起曰 "唉라! 紙以外는 皆水也라 하니라."[어떤 사람 중에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최북이)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아! 종이 밖은 모두 물이다."하였다.]⁴⁵⁾

③ 연암은 새벽에 두무개의 배에서 그를 진송하고 통곡하다 돌아왔다. 嗟乎라! 姊氏新嫁할새 曉粧如昨日이러라.[아! 누님이 시집갈 때 새벽에 단장하던 것이 어제만 같구나.]⁴⁶⁾

④ 兎曰: "噫라! 吾는 神明之後로 能出五臟하여 洗而納之라....[토끼가 말하기

41) ㉞ 천재교육, p.106.

42) 도서출판 대학서림, p.172.

43) 금성출판사, p.220; 천재교육 p.238; 다락원 p.206; 두산동아, p.233.

44) 금성출판사, p.58.

45) 대학서림, p.134.

46) 대학서림, p.250.

를 “아! 나는 천지(天地) 신령의 후예로 오장을 꺼내 씻어서 (몸속에) 넣을 수 있다...”⁴⁷⁾

①은 ‘嗚呼’는 한탄의 의미로, ②의 ‘唉’도 한탄의 의미로 쓰였는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인데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③의 ‘嗟乎’는 ‘嗟呼’와 같은 뜻으로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감탄사이다. 그런데 대학서림에서는 ‘嗟乎’의 ‘乎’를 ‘감탄 탄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乎’를 어기조사로 본 듯하다.⁴⁸⁾ 그러나 ‘嗟’와 연용하여 탄식의 소리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볼 수 있다. ④의 ‘噫’는 찬미를 의미하는 감탄사로 쓰였다.

⑤ 子曰: “參乎!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子出커시늘 門人이 問曰: “何謂也잇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시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參)아! 내 도(道)는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시니, 증자가 말하기를 “예.”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묻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하니,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道)는 충서(忠恕)일 뿐이다.”라고 하였다.]⁴⁹⁾

⑥ “吾家貧이나 欲有所小試하니 願從君借萬金하노라.” “諾다.” 立與萬金하니 客이 竟不謝而去하니라. [“내 집이 가난하나 조금 시험하려는 바가 있어 그대에게 만 냥을 빌리기를 바라오.” “좋소.” 바로 만 냥을 주니, 손님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⁵⁰⁾

⑦ 酒盡相別할새 女出銀椀一具하여 以贈生曰: “明日에 父母飯我于寶蓮寺시리니 若不遣我시면 請遲于路上이라가 同歸梵宇하여 同觀父母如何?오” 生曰: “諾이라.” 生如其言하여 執椀待于路上이라. [...“내일 부모님이 보련사에서 저에게 음식을 주실 것이니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청컨대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 함께 (저의) 부모님을 뵈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하였다. 양생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양생은 그 말처럼 주발을 들고 길가에서 기

47) 다락원, p.178.

48) 嗟乎 jiē hū 1. 亦作“嗟呼”. 亦作“嗟摩”. 2. 嘆詞. 表示感嘆.
(<http://cidian.xpcha.com/cb36b8ixf41.html>)

49) 다락원, p.156.

50) 다락원, p.190; YBM p.198; 두산동아 p.161; 대학서림 p.202.

다리고 있었다.]⁵¹⁾

⑤⑥⑦의 예문은 응답사가 쓰인 경우로 응답사로 상용되는 ‘唯’와 ‘諾’이 쓰였다. ⑤는 인정의 의미로, ⑥⑦은 허락의 의미로 응답하고 있다.

이상으로 감탄사는 여타의 허사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가 표음문자와 달리 구어에서 두드러지는 어휘들인 ‘감탄사’를 표현하기에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체적인 언어환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감탄사’의 문법의미적 특성은 한정적인 지문을 싣고 있는 교과서에서의 의미실현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기술한 품사의 한 갈래인 ‘感歎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연구다.

2007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품사’를 상정한 이래로 ‘感歎詞’는 ‘介詞’, ‘接續詞’, ‘語助詞’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감탄사’가 구어에서 두드러진 어휘로 문언문인 한문에서의 표현은 상당히 한정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또한 독립적으로 쓰여 통사적으로 문장구성성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문언문법에서 관심이 소홀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感歎詞는 여타의 虛詞와는 달리 화용론이나 담화분석 상에서 다용되어 나타나며, 독립적으로 쓰여 문장 내의 성분과 직접적인 통사 관계를 맺지 않는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정의를 내리면, ‘感歎詞’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같은 성음이라도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같은 형태로

51) 동화사, p.235.

도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선후행문장의 전체적 언어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한탄, 찬미 등의 感情感歎詞와 應答詞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여타의 虛詞와는 다르게 문장 밖에 독립적으로 쓰여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허사 중 하나의 품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살펴보면 상당히 한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한문이 표음문자와는 달리 구어에서 두드러지는 어휘인 ‘感歎詞’를 표현하기에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체적인 언어환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감탄사’의 문법의미적 특성은 한정적인 지문을 싣고 있는 교과서에서의 의미실현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參考 文獻>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 전국한문교사모임,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통합교재, 2014.
- 전국한문교사모임,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통합교재, 2014.
- 이관규, 『국어 문법교육론』, 월인, 2005.
- 박영순 지음,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5.
- 이석주·이주행·박경현·민현식·윤희원·고창수·이은희·오현아 지음, 『언어학과 문법교육』, 도서출판 역락, 2007.
- 許 璧,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 馬建忠, 『馬氏文通』 界說十,
- 裴學海, 『古書虛字集釋』 三卷, 臺北:鄉粹出版社, 中華民國66年.
- 史存直, 『文言語法』, 中和書局, 2005.
- 楊伯峻 지음·윤화중 옮김, 『중국어문언문법』, 청년사, 1989.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中華民國20年.
- 楊伯峻 著, 田樹生 整理, 『古今漢語詞類 通解』, 北京出版社, 1998.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 楊合鳴 編著, 崔금옥 편역, 『고금한어의 어법차이』, 한국학술정보(주), 2008.
-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 寥振佑 編著,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 寥振佑 編著, 이종환 옮김, 『한문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 牛島德次 著, 『漢語文法論』(中古編), 大修館書店, 1970.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5.
- 劉月華 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 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8.
- 殷國光, 『呂氏春秋詞類研究』, 華夏出版社, 1997.
-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 陳望道, 『文法簡論』, 上海教育出版社, 1997.
- 陳承澤, 『國文法草創』, 商務印書館, 1982.
-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榮, 『古代漢語虛詞通釋』, 北京出版社, 1985.
-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華正書局有限公司, 民國70.
- 黃六平 著, 洪淳孝 韓學重 譯, 『漢文文法綱要』, 미리내, 1994.
- 신지연,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2001.
- 安載澈,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研究」, 『漢文教育研究』 1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문법성분개념의 성립과 그 분류에 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http://uny.kr/?q=%E5%98%BB>

<http://cidian.xpcha.com/cb36b8ixf41.html>

Abstract

*A study on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grammatical meaning for the interjections - Centered on textbook by The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9 / Jung Soon-young**

This paper is a study on establishing of concept for 'divided into emotions The interjections' of 'The Parts of Classical Chinese Knowledge' in textbook by The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9. If we define the viewpoint of the scholars, the interjections is a phonetic character with a sound, and the same gender can be expressed in a sound, and the same form can represent a different meaning, can be divided into emotions such as joy, sorrow, surprise, anger, lamentation, praise, and responses. However, unlike other vassals, it can be said to be an independent item among the vagueness that is written outside the sentence independently and does not have a syntactic relationship with the composition of the sentence.

【Key words】 The interjections, The independents, The syntax, The pragmatics, The language environment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완료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Lecturer of Chungnam National Univ. / 7743jsy@hanmail.net